

山林經營協業體 運營에 關한 會員의 意識動向*

姜學模¹ · 姜聲然² · 安鍾萬¹ · 李尙鉉²

The Opinion Trend of Members of the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Concerning Its Management*

Hag Mo Kang¹, Sung Yun Kang², Jong Man An¹ and Sang Hyun Lee²

要 約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의 주체인 산림경영협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협업체 가입의 동기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협업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협업체 운영에 관한 설문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1993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울산군 서하·인보산림경영협업체와 전라북도 진안군 세정산림경영협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회원은 소재 회원 가운데 산림사업량이 가장 많은 회원순으로 각각 20인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협업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 협업체 가입후의 이점, 협업경영 방식, 협업체의 법인화 및 앞으로의 산림경영계획 등 협업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관련기관으로 부터의 자료수집과, 조사대상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9개 협업체의 회장 전원을 면담하여 협업체 운영에 관한 의견도 구하였다. 설문 결과 협업체 조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자주적인 산주조직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산림경영으로부터 수입이 없어, 산림사업 대행과 육림기술제공에 대한 지도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업기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업산림경영에 대한 참여의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members' affiliation motive to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 which is the main managerial body of the private forests and management problems of the organization to find out a solution of the problems and set active promotion plan. The questionnaire about the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s was done by interviewing the members at Seoha·Inboh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 in Ulsan-gun, Kyongsangnam-do and Sechong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 in Chinan-gun, Chollabuk-do from July to August in 1993. Twenty interviewees were selected in the order of their business quantity on the forest from the members who reside in their villages. Integrated matters such as were members' affiliation motive, benefit after their affiliation,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other issues concerning to managerial plans questioned. During the survey period, other data about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s were collected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opinions of every president of nine cooperatives in the investigated regions.

The majority of the members agreed that the cooperative is an independent forest organization and

* 接受 1997年 3月 20日 Received on March 20, 1997.

¹ 順天大學校 農科大學 山林資源學科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Agricultu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² 全北大學校 農科大學 山林資源學科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Agricul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560-756, Korea.

evaluated the Training and Extension Service Center high. However, their participations in the cooperative such as forest technical training and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were low since they have not earned any income from their forest management.

Key words : affiliation motive and management problems,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 independent forest owners, Training and Extension Service Center

緒 論

1. 研究目的

산림경영협업체는, 산림정책의 장기 과제로써 수립된 산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1977년부터 조직된 산림소유자 단체이며, 일정지역내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가 임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상호 결합시켜 생산과 판매의 협업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운영되는 민간임업조직체이다.

1995년말 현재 44개 사업지역에 202개의 협업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협업체 가입 산림면적은 152,182ha, 가입산주는 20,711인이나, 앞으로도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그 조직은 확대될 예정이다(산림청, 1996). 그러나, 1993년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재편되고, 1995년에는 협업체를 지도하던 기존의 협업경영지도소가 해당 임업협동조합으로 편입되어, 임업협동조합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게 되었다. 협업체의 산림작업은 대부분이 정부 보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협업체 조직의 주요 목적인 회원공동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 및 공동작업에 의한 노동력 부족의 해소도 협업체에 대한 가입 회원들의 낮은 관심으로, 회원들 협업에 의한 진정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협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강학모, 1995). 따라서, 가입 회원들의 협업체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협업체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향을 파악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유림 협업경영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협업경영의 이론과 조직론에 관한 연구는 박태식(1986)과 김종관(1988a, 1988b)에 의해 주로 수행되어졌으며 협업경영과 관련한 임업 노동력 문제는 서수봉(1981), 이광원 등(1989), 유병일과 김철상(1990)의 연구보고가 있다. 그러나, 협업체 운영의 주체인 참여 산주들의 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조응혁, 1981; 김종

관, 1984a, 1984b)는 그 대부분이 협업경영기간이 짧거나 경영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이다. 경영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 1990년 이후에는 “협업체수의 급속한 증가는 개별협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감소를 야기하여 오히려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협업경영사업에 대한 참여 산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정주상 등, 1996) 연구 보고 이외에,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협업경영의 발전과 협업체의 내실 있는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협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의향을 파악 검토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유림경영의 주체인 협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체 운영에 관한 가입산주들의 의향을 조사하여, 협업체 가입동기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 협업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2. 研究方法

1) 調査內容

본 연구는, 1993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협업체 가입 회원들의 의식동향을 파악, 협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실시한 조사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먼저, 조사대상지는 노동시장의 전개도를 고려하여 농가 점유율이 전국평균 보다 높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경상남도 울산군과, 농가 점유율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산간에 위치한 전라북도 진안군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지의 선정은 협업체의 조직 년차를 고려하여 행하였다. 1992년 140개 협업체는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에 조직되었으나, 8개도의 135개 군 가운데 42개 군에 협업체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140개 협업체 가운데 약 100개 협업체는 1990년 이후에 조직되어 경영기간이 짧고, 협업체에 대한 가입율도 낮은 상황으로 협업경영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하였다(산림청, 1993; 산림조합중앙회, 1991; 산림조합중앙회, 1992).

조사대상인 협업체의 선정은, 먼저 경상남도 울산군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4개 협업체와 4개 협업체작업단이 시범적으로 조직 운영되어 15~17년간(1993년 기준)의 경영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는 울산군의 시험적 경영의 성과에 의해 1984년부터 전국에 확대 조직된 협업체의 일부로써 경영기간은 3개 협업체가 10년, 2개 협업체가 3년이다. 그 중 조사대상으로 정한 경상남도 울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서하·인보협업체(1977년 조직)는 4개 협업체(서하·인보, 차·구량, 내와, 소호) 가운데, 소호협업체와 함께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산림사업도 타 협업체와 비교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세정협업체는 연정, 오암협업체와 함께 1984년 조직되었으며, 진안군에 조직되어 있는 세정, 연정, 오암, 거석·궁항, 수항·두남·황금의 5개 협업체 가운데 산림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협업체이다.

피조사자는,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와 진안군 세정협업체, 양 협업체 모두 협업경영지도소(註: 양산시범 협업경영지도소는 현재 임업기술훈련원, 진안협업경영지도소는 임업기능인훈련원으로 그 명칭이 개칭 되었음)로부터, 소재 회원 가운데 가장 산림사업량이 가장 많은 회원순으로 각각 20인씩을 선정 받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협업체 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협업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 가입전과 가입후의 변화, 협업체 운영에의 참여와 존재가치, 협업체 회원의 자격과 경영방식, 협업체의 법인화 및 회장에의 수당지급, 임업기술교육과 협업체 발전에 관한 의견, 산림작업에의 참가와 앞으로의 산림경영계획 등이다.

한편, 부재 회원을 배제하고는 협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추후에 부재산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調査對象地의 概要

각 협업체와 회원의 개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상남도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의 경우는 협업체 가입대상 산주는 319명(소재: 212인, 부재: 107인)이나, 가입산주는 81인(소재: 61인, 부재: 20인)이다(양산시범협업경영지도소, 1992). 회원 20인(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65세이며, 60세 이상이 17인으로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회원 20인의 호당 평균 산림면적은 3.8ha이나, 산림으로 부터 수입이 전혀 없어, 산림경영 의욕이 없었으며, 소유산림의 80% 이상이 30년생 이하의 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작업은 협업체 조직 이후에 실시되었으나, 그 작업의 실시주체는 협업체작업단과 자가노동이 대부분이었다. 간벌은 20인 회원 가운데 2인이 실시하여 간벌실적은 부진하나, 그 이유는 간별로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회원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도 산림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과 관심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회원의 농림업경영은 열악한 노동력 구성으로, 농림업경영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또한 겸업기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에 노동력을 투입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으려는 사정도 있었다.

전라북도 진안군 세정협업체의 경우, 협업체 가입대상 산주는 409인이나, 가입산주는 181인(소재: 82인, 부재: 99인)이다(진안협업경영지도소, 1993). 회원 20인의 평균 연령은 59세이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 20호의 년평균수입 구성을 보면, 농업수입이 총수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수입은 9.8%로서, 축산수입 8.0%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임업수입의 자원은 표고버섯원목 62.5%, 표고버섯 35.9%, 간벌재 1.6% 등이다. 호당 평균 산림면적은 11.6ha, 그 중 14호가 10ha미만의 소규모 산림소유이며, 소유산림의 82.7%가 21~30년생의 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벌을 제외한 산림작업의 대부분은 협업체 조직 이전에 실시되었으며, 간벌은 회원 20인 가운데 18인(16인은 협업체조직후 실시)이 실시(간벌대상면적 48.3%의 간벌실시)하여, 간벌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요인으로는 간벌재 판매에 있어, 협업경영지도소의 적극적인 판매알선과 수탁을 들 수 있으나,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한 협업체작업단의 벌채도 간벌을 촉진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겸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산림에 노동력투입을 통해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회원이 많았으

며, 비교적 안정된 농업경영기반은 간벌에 노동력투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림경영에 있어서는 총수입의 9.8%가 임업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의 목적은 소극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本 論

1. 協業體에 對한 認識과 加入理由

먼저, 협업체의 인식에 대하여는, 양 협업체 회원 40인 전원이 협업체를 “자주적인 산주조직”으로 평가하였다. 협업체에 가입한 이유는, “지도소의 권유와 지도소가 산림사업의 수속·관리를 대행하여 주기 때문에”가 25인, “다른 산주가 가입하기 때문에” 6인, “육림을 위하여” 2인 등이었다.

협업체 가입의 이점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 없음” 15인, “노동력 부족의 해결” 9인, “지도소의 대행으로 육림가능” 9인 등이었다.

2. 協業體 運營의 參加와 存在價値

회원들은, 총회와 임시회의를 통하여 협업체 운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의 경우 임시회의의 대부분은 조림용 묘목과 녹화용 수묘 및 표고버섯 등 단기간에 수입이 얻

어질 수 있는 협업체의 공동소득사업에 관한 것으로, 산림경영을 위한 회원의 공동작업에 관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참가의사에 대해서는, 회원 20인 가운데 19인이 “참가계획”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그것은 공동소득사업에 의한 배당금과 공동재산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로 1992년 현재 서하·인보협업체는 12.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묘포장과 사무실)을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985~91년까지 회원 공동소득사업으로써 표고버섯 재배를 실시하여 1.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1992년 현재는 3.2만본의 사철나무 양묘를 공동 소득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동소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진안군 새정협업체의 경우 총회는 년 1회로, 1992년에는 회원 20인 가운데 18인이 참가하였으나, 앞으로의 참가의사에 대해서는 13인이 “참가계획”이라고 대답하였으며, 6인은 “잘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하였다.

협업체의 존재가치에 대하여는, “지도소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이 13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소득사업” 4인, “산주조직” 4인 등이었으나, 6인은 협업체작업단의 조직이야말로 협업체가 존재하는 의의라고 대답하였으며, 8인은 “잘

表 1. 協業體에 對한 認識과 加入理由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協業體에 對한 認識 (人) 자주적인 산주조직	協業體 加入理由 (人)						
				지도소의 권유와 지도소가 산림사업의 수속·관리를 대행하여 주기 때문에	다른 산주가 가입하기 때문에	육림을 위하여	자주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산주 조직 이어서	산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하여	작업단의 필요하여
		40	40	25	6	2	2	2	2	1
西河·仁甫	計	20	20	13	3	2	1	1		
細亭	計	20	20	12	3		1	1	2	1

表 2. 協業體 加入의 利點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協業體 加入前과 加入後의 變化內容 (人)					
			별로 변화 없음	노동력 부족의 해결	지도소의 대행으로 육림가능	육림기술 향상과 산림에의 관심이 높아졌음	산주조직 이 결성 되었음	간벌수입이 있어 유익 하였음
		40	15	9	9	4	2	1
西河·仁甫	計	20	7	6	5		2	
細亭	計	20	8	3	4	4		1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하였다.

3. 協業體 運營에 對한 意見

협업체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원 29인이 "산주만 회원자격 있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부재 산주의 가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한 회원이 25인, "가입반대"가 6인이었으나,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의 경우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동소득사업에 의한 수익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진안군 세정협업체의 경우, 부재 산주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원은 협업체 구역 내의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부재 산주의 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었다.

협업에는 여러 가지 경영방식이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협업체에 경영권과 소유권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한 회원이 25인, "경영·소유권 위탁하지 않음"이 7인므로, 32인의 회원이 산림경영권·소유권의 위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한편,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위탁할 의사를 가진 회원은 7인이다.

협업체의 법인화와 회장 수당지급에 대한 회원의 의향은 다음과 같다.

협업체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회원 37인이 "잘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회장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17인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하다고 15인의 회원이 대답한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의 경우는 공동소득사업에 있어 회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나, 그 수당의 부담은 "정부"가 9인, "협업체 회원"이 2인, "잘 모르겠음" 4인이었다.

진안군 세정협업체의 경우, 회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회장이 그다지 활동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불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법인화 되어야 한다는 2인은 그 이유를 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법인화에 의해 협업체에 신용이 부여되어 자금 지원이 유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업체 회원은 협업경영지도소로 부터 임업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그에 대한 생각은 "유익" 21인, "고령으로 관심이 없음" 9인, "임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음" 6인, "잘 모르겠음" 4인이었다. 유익하다고 대답한 21인의 회원은 지도원에 의한 교육이 강제적이지 않고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협업체발전을 위한 제안으로써는, "잘 모르겠음" 22인 "공동재산조성확대" 7인, "작업단육성"

表 3. 協業體 運營에의 參加와 協業體의 存在價値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協業體 運營에의 參加								協業體의 存在價値 (人)							
			1992年 參加回數(回)				今後的 參加意思(人)				지도소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				공동소득사업			
			회원 1인당 참가회수	합계	총회	임시회의	합계	참가 계획	참가 할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지도소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	공동소득사업	산주조직	작업단의 노동력	존재 가치를 못느낌	육림 기술정보 제공	잘 모르겠음	
西河·仁甫	計	20	3.4	67	19	48	20	19	1	6	4	4	3	3				
細亭	計	20	1.2	23	18	5	20	13	1	6	7		3		2	8		

表 4. 協業體 會員의 資格과 經營方式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協業體 會員의 資格 (人)			不在山主의 加入에 對하여 (人)			協業經營方式 (人)				
			산주만 회원자격 있음	비산주도 회원자격 있음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가입 반대	가입 필요	잘 모르겠음	경영·소유권 위탁 않음	경영권만 위탁	경영·소유권 위탁	생산·판매만 공동으로
西河·仁甫	計	20	19	1	10	12	6	2	12	4	3	1	
細亭	計	20	10		10	13		7	13	3	3		1

3인, “임도건설” 2인 등이었다. 그러나 공동재산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7인은 전원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 회원이다.

4. 山林經營에 對한 앞으로의 計劃

회원 가족노동에 의한 산림작업의 실적을 살펴 보면, 울산군 서하·인보협업체의 경우, 회원 20호 가운데 1992년 산림작업을 실시한 회원은 6호이며, 가지치기와 풀베기 및 순산을 실시하여, 회원 1호당 4.9인일이 투하되었다. 진안군 세정협업체의 경우는, 회원 8호가 덩굴 제거를 30인일, 보육간벌을 3인일, 가지치기·풀베기 24인일, 표고버섯 원목 생산을 20인일 실시하여, 회원 1호당 육림에 투하한 자가노동량은 3.9인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임업수입에 대해서는 양 협업체 회원 전원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산림작업은 작업단에 위탁하겠다고 대답한 회원이 37인, 생산물의 판매를 지도소에 위탁하겠다고 대답한 회원은 35인이었다.

산림경영에의 관심에 대해서는, “관심 있음”이라고 대답한 회원이 25인, “별로 관심 없음” 7인, “저소득으로 관심 없음” 7인이었으나, 산림경영상 필요한 보조금증대, 임도 개설, 작업단육성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별로 없음” 또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산림의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낮은 수익성과 현금 필요성의 이유 때문에 회원 6인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산림소유규모에 대해서는 소유규모의

表 5. 協業體의 法人化와 會長에의 手當支給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協業體의 法人化에 對하여 (人)		協業體 會長에의 手當支給 (人)					
			잘 모르겠음	법인화 되어야 한다	會長에의 手當支給의 必要性			手當支給의 主體		
					필요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정부	협업체 회원	잘 모르겠음
西河·仁甫	計	20	19	1	15	1	4	9	2	4
細亭	計	20	18	2	2	9	9	1	1	
合計		40	37	3	17	10	13	10	3	4

注: 手當支給 主體에 對한 質疑는 手當支給이 必要하다 라고 應答한 會員에게만 質問.

表 6. 林業技術教育과 協業體의 發展方向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林業技術教育에 對하여 (人)				協業體 發展을 爲한 提案 (人)									
			유익	고령으로 관심이 없음	임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관심없음	잘 모르겠음	공동재산 조성 확대	작업단 육성	임도 건설	협업체 회원들의 관심	법적 지위 확보	잘 모르겠음	보조금 확대	지도 강화와 수종갱신	산주들의 자주적인 산림경영	현재는 경영 단계가 아님
西河·仁甫	計	20	14	5		1	7	3	2	1	1	22	1	1	1	1
細亭	計	20	7	4	6	3	7	3	2	1	1	6				
合計		40	21	9	6	4	7	3	2	1	1	22	1	1	1	1

表 7. 山林作業에의 自家勞動 投入實績과 앞으로의 計劃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山林作業 (人日, 1992年)						林業收入에의 期待(人)	앞으로의 計劃 (人)				
			투입 일수 합계	1호당 투입 노동일수	가지치기·풀베기	덩굴 제거	표고버섯 원목생산	보육 간벌		산림 순찰	기대하지 않음	노동主體	販賣主體	
					작업단	잘 모르겠음	지도소	잘 모르겠음						
西河·仁甫	計	20	97	4.9	95		2	20	18	2	18	2		
細亭	計	20	77	3.9	24	30	20	3	20	19	1	17	3	
合計		40	174	4.4	119	30	20	3	2	40	37	3	35	5

表 8. 山林經營에의 關心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山林經營에의 關心 (人)			山林經營上 必要한 事項 (人)				林野賣却意思 (人)		後繼者有無 (人)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저소득 으로 관심 없음	별로 없음	잘 모르 겠음	수종 갱신	임도의 확대	매각 의사 있음	매각 의사 없음	후계자 있음	후계자 없음
協業體名	合計	40	25	8	7	11	24	4	1	6	34	5	35
西河·仁甫	計	20	19	1		11	9			2	18	3	17
細亭	計	20	6	7	7		15	4	1	4	16	2	18

表 9. 앞으로의 山林經營規模에 對하여

協業體名	合計	會員數 (人)	山林所有規模에 對하여 (人)									經營改善 (人)		
			擴大			現狀維持					縮小			
			이자보 다 지가 상승을 이 높다	표고버섯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산적 가치로 소유	조상의 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분 소재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하여	수익성 이 낮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때문에	산림 부 산물과 지가상 승 기대	수익성 이 낮기 때문에	계획 있음	계획 없음
協業體名	合計	40	1	1	11	9	4	4	1	1	8	40		
西河·仁甫	計	20	1		11	3	3				2	20		
細亭	計	20		1	6	1	4	1	1	6	20			

확대가 2인, 현상유지가 30인, 축소가 8인이었다. 산림소유규모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회원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표고버섯의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 때문이었다. 한편, 현상유지의 이유는 재산가치가 11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외에는 선산과 저 수익성 등이 그 이유였다. 축소 의사를 지니고 있는 8인은 전원 저수익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으로 임업기계장비의 도입 등 적극적인 산림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양 협업체 회원 40인 전원이 관심이 없고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다.

結 論

경상남도 울산군 서하·인보산림경영협업체(회원 20인)와, 전라북도 진안군 세정산림경영협업체(회원 20인)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체 가입 산주들은 협업체를 자주적인 산주조직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도소의 산림사업에 대한 수속·관리의 대행 및 협조, 그리고 장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협업체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입 이후에도 산림경영이 가계

경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여 협업경영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협업체 운영에 관한 회원의 참여는 산림사업 대행과 육림기술제공등 지도소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수동적이고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협업체의 법인화에 대해서도 수익이 없는 유령임이 대부분 이여서 소극적이며, 협업경영 방식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협업체에 경영권을 위탁 또는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도소의 산림사업 대행과 지도원의 육림기술보급에 대해서는 회원의 호감도가 높았으나, 노력의 회원들이 많고, 산림으로부터 소득이 없어 관심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회원들은 협업산림경영하에서도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은 낮아, 임하는 선산 또는 자산보존 형태의 소유이고 매각을 희망하는 회원도 있었으나, 임업노동의 공급과 산물의 처분은 작업단 또는 지도소에 의존코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협업경영의 주체이며 협업체의 구성원인 소재 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부재 회원을 참여시킨 산림사업의 공동작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뒤따른다. 또한, 주벌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의 산림작업내용은 간벌중심의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고령인 협업체 회원들에 의한 산림작업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산주들의 노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작업단의 육성이 필수조건이 된다. 한편, 협업경영지도소의 적극적인 지도 활동은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나, 협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 지도하게 된 임업협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협업경영에 의한 효율적인 산림경영의 단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산림의 육성이 전제조건이 되나, 산림경영으로 인한 임업수입이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되었을 때, 산주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경영권 이양에 의한 집단적이고도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협업경영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부재 산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재 협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부재 산주의 적극적인 협업체 운영에의 참여 유도, 미가입 산주의 가입독려 등이 필요할 것이며, 부재 산주가 배제된 협업체 운영은, 협업경영의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引用文獻

1. 강학모. 1995. 한국의 산림경영협업체에 관한 연구. 구주대학 박사학위논문.
2. 김종관. 1984a. 공동소유 사유림의 소유권 정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62 : pp95.
3. 김종관. 1984b. 사유림 소유실태와 협업경영에 대한 사례연구. 손원하고교수 추모논문집. pp146.
4. 김종관. 1988a. 사유림 협업경영의 논리. 한국임학회지 77(2) : 243-250.
5. 김종관. 1988b.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전개에 따른 산주의식의 변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박태식. 1986. 앞으로의 임업발전계획모색. 한국임학회지 74 : 16-18.
7. 산림조합중앙회 1991. 1990 임업기술지도 사업보고서. 122-123.
8. 산림조합중앙회. 1992. 산림조합30년사. 254-255.
9. 산림청. 1993. 임업진흥계획. 3-9.
10. 산림청. 1996. 임업통계연보. pp380.
11. 서수봉. 산주조직에 의한 사유림 개발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97.
12. 양산시범협업경영지도소. 1992. 협업경영 사업실적.
13. 유병일, 김철상. 1990. 사유림의 산림작업노동연구. 임업연구원 연구보고 201. 73-74.
14. 이광원의 4인. 1989. 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 20-35.
15. 정주상, 박은식, 김규현. 1996. 협업체 운영에 대한 참여산주들의 인식과 정책적 추진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임학회지 85(3) : 487-495.
16. 조응혁. 1981. 협업경영에 대한 산주태도와 사회경제적 변수. 53 : 59-61.
17. 진안협업경영지도소. 1993. 업무계획.